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미란\*\*·김혜원\*\*\*·조혜영\*\*\*\*

### 초 록

본 연구는 성매매 근절 및 탈성매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종사자 4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의미화 되었다. 첫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경험은 '우연으로 맺은 인연'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내러티브는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의미화 되었다. 셋째, 이들이 바라는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내러티브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현장 경험, 내러티브 탐구

\* 이 논문은 박미란의 석사학위 논문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 1 저자: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yellow3611@naver.com)

\*\*\* 공동저자: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wisdom77@gjue.ac.kr)

\*\*\*\* 교신저자: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johye@gjue.ac.kr)

## I. 서론

성매매 및 성매매피해자 관련 비극적 사건 발생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국가는 2004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법령은 수차례 개정되고 정비되어 왔지만 여전히 성매매 문제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도 파생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는 음성화되고 있으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성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성매매는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워지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성매매를 개인 간의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피해를 겪은 성제공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자발과 강제의 이중적 잣대로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하고 있다(최수연, 2021).

성제공자의 성매매가 온전히 개인적 선택이라는 설명은 행위가 발생하는 맥락과 사회구조에 대한 파악을 등한시하게 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육혜련·남미애, 2016). 성매매 발생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최은지·조아미, 2021).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출 등을 경험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행·감금·굶김 등의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피해자의 성제공 행위가 자발적 선택이든 타의에 의한 강요이든 사회의 구조적 성착취 피해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김혜경·구차순, 2017; 박은화, 2017; 최정일, 2018). 이들은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성 차별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육혜련·남미애, 2016). 결국, 전반적으로 성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 낙인과 선입견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무자 역할 수행 과정도 또한 열악한 실정이라 평가되고 있다. 지원 체계에 대한 법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탈성매매운동가들의 활동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여성 인권운동과 병행하는 데에도 갈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하지선, 2013; 황경란, 2020).

성매매 근절과 탈성매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그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탈성매매와 자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실천과정과 역할 갈등에 대한 관심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의 현장 업무 과정은 성매매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자활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공식 업무 수행뿐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지원을 함께 하며 고군분투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가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성상품화 풍조 속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현장 종사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정립해 가는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별 행위자들이 살아온 경험과 그 변화과정을 삶의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소명·김미옥, 2022; 홍영숙,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 경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지형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지원 현장 경험은 어떠한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 현장과 성제공자를 구조하는 과정,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 등의 내러티브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매매피해자의 개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행위인 성매매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한 자를 성매매피해자라 부르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와 관련하여 ‘매음’, ‘매창’, ‘매소’, ‘매춘녀’, ‘윤락녀’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몸과 웃음을 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의미를 부각시켜온 반면, 성을 구매한 자는 비가시화하여 피해자에게만 낙인을 부여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박정미, 2011; 최수연, 2021).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전개와 더불어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역 주변과 여관, 술집 주변에 사창가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윤락 시설은 사회 풍습을 해친다는 이유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박찬걸, 2012). 한편, 이 법에서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성 제공에 대해 타락으로 규정하여 성 제공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반면(박정미, 2011), 고급요정이나 관광 매춘과 미군 매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된다(김정숙, 2000).

성 제공자들의 인권과 성매매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1992년 발생한 기지촌 성제공자 살인 사건과 1995년 경기여자기술원 화재 사망사건을 통해 성제공자에 대한 비인권적인 상황들이 드러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 등을 통해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이하영, 2009; 임수정, 2014).

하지만,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도 여전히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매매한 자의 구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박찬걸, 2014).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성매매라는 용어에는 성을 제공하는 자와 성을 구매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인 성판매자는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된 자’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성 제공자는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 그에 따라 당사자가 성매매 피해자성을 밝혀야만 피해자로 인정되

어, 법률,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박찬걸, 2014; 최수연, 2021; 최정일, 2015). 그러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자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경찰과 상담기관 등 신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2013). 더욱이, 법률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성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강요, 감시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재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오지현, 2018).

이와 더불어, 성매매 발생 이면에 존재하는 성제공자의 열악한 가족 여건과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최은지·조아미, 2021),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 통념이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다른 층위로 존재하여, 제도적 지원을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안준리, 2009; 최수연, 2021; 최수형, 2003). 더욱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관련 대책들이 수립되어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급속도로 성장하여 ‘키스방’, ‘안마방’에 이어 ‘출장 성매매’ 등 신·변종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공적 통제를 비껴가고 있는 실정이다(오지현, 2018).

##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심리안정, 인성교육,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최수연, 202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초창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였으며, 윤락여성을 선도 보호하는 보호지도소와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보도시설 등이 운영되었다(김선희, 2007).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법적 근거를 갖고 확충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하지선, 2013; 황경란, 2020). 이후, 기존 지원체계를 확대 보강하여 시설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는 31개소, 일반지원시설은 24개소, 청소년지원시설 14개소, 외국인지원시설 1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1개소, 자활지원센터 13개소, 대안교육위탁기관 2개소로 총 96개소의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하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운동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관련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반성매매 운동 활동가이기도 하다(최수연, 202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하지선, 2013). 그러나 여성주의 의식 및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사를 지원하여 종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무원으로 우선 채용을 하여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거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지원자를 채용하여 시설 자체 교육을 통해 성매매 상담원으로서의 업무와 여성인권 관점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황경란, 2019).

여성가족부(2022)의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는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기술교육,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사항’ 등으로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 지원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기존에 수행된 유사한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들의 사례관리 경험을 살펴본 연구(육혜련·남미애, 2016)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례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여성 인권적 측면에서의 입장과 성과지향적인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도 수행되었다(황경란, 2019).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가 구비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원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비판하며, 지원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하지선, 2013). 그리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탈성매매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도움은 평범한 삶으로의 회복에 큰 지원세력이 됨을 보이고 있다(최은지·조아미, 2021).

이들 연구는 지원현장의 제도적 실천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현장 경험이 시간과 맥락에 따라 어떠한 흐름을 갖고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데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수는 비교적 소수로 3명에서 5명 내외로 이루어지기에(김명화, 2022; 김시진·홍아정, 2017; 이소명·김미옥, 2022; 이현영·조덕주, 2022), 이들의 이야기화된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 1. 현장으로 들어가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매매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살아온 시간 흐름 속에서 누적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현장 경험은 시간의 흐름(over time)과 상황(in context) 참여를 통해 겪어 온 이야기된 경험(storied experience)으로 구성된다(홍영숙, 2020; 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는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으로 근무할 당시 여성폭력 사례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자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차 피해 사례,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 등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성매매방지 캠페인 및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제공한 이들이 왜 성매매피해자인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으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기존 인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안들과의 조우 경험이 쌓이며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이들의 자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연구 수행을 위해 2021년 11월 초부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참여 의뢰를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모집에 한계가 있어 성매

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참여자 1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 4인을 섭외하게 되었다. 11월 말부터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계획 그리고 심층면담 과정에 대해 알렸다. 참여자 선정과정에서는 심층면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들에 더하여 자연스럽게 풍부한 내러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유기웅 외, 2018)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제한을 두었다. 연구참여자의 간략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 참여자 | 성별 | 연령대 | 경력  | 학력 |
|-----|----|-----|-----|----|
| A   | 여  | 60대 | 22년 | 대졸 |
| B   | 여  | 50대 | 7년  | 대졸 |
| C   | 여  | 40대 | 5년  | 석사 |
| D   | 여  | 30대 | 6년  | 석사 |

## 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자료수집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의 단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이며, 연구참여자가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인식에 중점을 두고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심층면담 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면담 일정에 관하여 전화 통화로 알렸고 사전 면담 전 연구 계획서 및 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수회에 걸쳐 심층면담이 진행될 것이며 인터뷰 자료는 본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고지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사용될 질문지는 인터뷰 시작 전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또한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위해 질문지 이외의 질문들도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렸다.

심층면담은 3회기 이상 진행되었으며, 한 회기 당 소요시간은 60분~120분이었다. 심층면담 1회기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종사하게 된 계기에 초점을 두었고, 2회기는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회기에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제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3회기에 걸친 심층면담에서 구성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삶 안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서 경험된 내러티브의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협의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심층면담이 나누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3회 이상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주고받은 후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참여자 서면 동의 하에 연구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두 녹음한 후 직접 전사하였다. 현장 텍스트의 원본 녹음자료는 연구자의 노트북에 비밀번호 잠금으로 보완하여 보관하고 전사자료 출력물은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점검을 받았으며, 보안을 위해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연구자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 3.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와 그 경험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 텍스트가 주는 의미를 발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할 때 현장 텍스트에 대해 연구자는 그 의미와 사회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또한 독자에게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간성(temporality), 장소(place), 사회성(sociality)의 3차원적 탐구 공간 안에서 왕복 운동을 반복하여 연구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그들이 살아낸 삶과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함께 한 기억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왔던 삶과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성매매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원하기까지의 내적 갈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폭넓게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에 대한 실제적 지식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작성된 연구 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보여주었고 이후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렇게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연구 텍스트에 대해 연구참여자들

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비밀엄수 등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 있기 때문임을 연구자 또한 알고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수집된 자료를 즉각 파쇄하여 제거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자료 및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에 대한 것은 연구 종료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에 대한 안내 등을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참여자가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적 윤리를 고려하여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존중함과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유지하였으며, 개인 정보 관련된 사항들을 민감하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협력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그들의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A종사자의 이야기

##### 1) 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 (1) 자연스럽게 여성복지 분야로 진입

연구참여자A는 60대 초반으로 현재 23년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A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사

회복지와 함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부전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여성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A종사자가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로 ‘직업보도원’이라는 명칭의 사회복지시설이었으며 이후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호기심이라든가 지식 욕구도 있고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심리학을 부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심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성의 심리 상태 특히 감정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식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집안 전체 선친이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복지 쪽으로 유입이 된 거지.

## (2) 근무 초기의 인식과 태도: 편견 갖지 않도록 노력하기

처음 성매매지원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A가 당면한 과제는 성과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판단 유보적 태도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8년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한다. A종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와 관습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체감하고 있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이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매매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연구적 호기심이 컸지. 거기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그 내막도 제대로 모르는, 알지 못하는데 좀 선부르게... 이게 왜 국가의 돈을 쓰느냐? 나쁘다 좋다 해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특히 이제 성매매라는 그 복잡한... 이런 것들을 놓고 쉽게 재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썄...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또 그 이해 부분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 그다음에 그 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성 인식보다 사회적인 성 인식,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매매에 대한 어떤 태도

들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한번 보자라는게 그때 생각이기 때문에 호불호의 생각은 없었어.

##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형성

### (1)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인식 형성 과정

연구참여자 A는 성매매에 유입되어 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자발’에 의한 범죄자로 바라보아야 할지 ‘강제’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성매매에 유입된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에 유입된 기간뿐 아니라 성매매로 유입 과정과 성매매 공간 안에서 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매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가족으로 인하여 이들이 피해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에 유입되어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회 구조적 피해자이므로 국가에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고 짧은 시간에 본다면 자발적 성매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맞다. 왜 성매매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성매매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라고 한다면 성매매로 유입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거지. 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경제적인 거, 가족 문제, 국가의 교육 문제,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지... 결국은 사회 구조 전체에 대한 피해자다라는 거지.

### (2) 성매매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형성

연구참여자 A는 성매매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허용 정도가 다르며, 일정지역에서의 허가 또는 금지 등 다양한 규제 방식이 있음에 대하여 언급하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성산업을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득과 실, 사회적인 해악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A는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자들은 성을 제공해서 이익을 얻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경우보다는 빚을 지고 건강상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이득을 얻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인성 파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성이 파괴되고 결국은 우울증 이라든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어떤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으로 거의 재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 사고로 보면은 그 어떤 여성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성매매하려고 태어났거나 또 성매매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그 수치심이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제도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냐 하는 문제야. 그건 옳지 않다.

### 3)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

#### (1)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한 근본적 전제 공유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하여 자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성매매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자활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이후 자활을 시작하여야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성매매피해자 스스로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외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 친구들이 왜 자활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자활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도 단절돼 있고 혼자 고립돼서 생활하면서 하는데 사실 생활해가면서 큰 돈 필요 없어요. 자활할 이유가 사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밥하고 담배 한 갑 있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일 해가지고 뭐 적은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집도 사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누구를 줄 건데? 예를 들어서 결혼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달라.

해서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는 자활 속도가 빨라. 그래서 돈 쓸 곳을 건전한 곳으로만 들어주고 건전한 방법을 찾아야지.

### (2) 성매매피해자 지원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해서 자활에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밤과 낮이 바뀐 채 생활해 왔던 성매매피해자들의 생활습관 개선, 언어 사용 및 사회생활 적응 지원 등은 장기적으로 함께 생활을 해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명시적 업무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사회생활 기술, 관계 형성을 통한 심리적 위안 등은 업무 영역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시설을 폐쇄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지원 현장의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자활에 실패하는 경우, 자원 연계하다 실패하는 경우에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성취감도 없고 한계가 많이 와. 또 우리 일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이쪽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지원 스펙이 적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 갖고 한 단일초점 어떤 하나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인생 전반에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다는 거. 제일 먼저 교육부터 시작해 자격증 따는 거, 신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서비스가 풀로 들어가야 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 (3) 전반적인 성매매 인식 개선 교육 필요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지만, 현재 성매매에 유입되어 있거나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측면들은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고, 인식을 바르게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개별적인 성교육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에 바뀌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다만 제도나 관습들을 서서히 바뀌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성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 성교육부터 성에 대한 인식부터. 그래서 성에 대해 가지고 교육 계획을 만들어야 해.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라 미혼모,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피해자 관련 지원 체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많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면서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2. B종사자의 이야기

### 1) 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 (1) 진입 계기: 사회복지사로서의 일 시작

연구참여자B는 50대 초반으로 2022년 기준 8년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B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다 우연한 계기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한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 B는 사회복지시설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지원하여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좋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부분...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회복지를 4~5년 그렇게 했는데 여기를 오게 된 것은 그냥 (중략)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인데 사무 보조원을 구하게 돼서 오게 된 거였어요. 복지에 유입된 것은 그렇게 우연치 않게 해서 했다가 지금 여기 이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 (2) 근무 초기의 인식과 태도: 사회적 통념에 따른 인식과 변화 노력

연구참여자B는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B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매매 사례를 보았을 때, 성매매 행위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좋아서 본인의 선택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알바생들 대학생들이 알바로 했잖아.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도 되고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나 싶었어. 왜냐하면 집결지에서... 인신매매 당하거나 뭐한 그다음에 포주로 인해서 뭐 한 그런 사례를 본 것이 아니라...

이후 연구참여자B는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슈퍼비전과 교육을 받으며 그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를 사회구조적 피해자로 바라보고 그들을 지원하며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지 저 사람도... 파는 여성도 피해자예요.' 그랬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 이들이 그렇게 밖에 일을 못 하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구조지원 사업이라는 거. 아웃리치나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들을 현장에서 구조하고 이들을 쉼터 지원시설, 자활시설에서 이들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서 이들을 7년간 봤을 때는 이게 원초적인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들에 이리한 것이 학교에 잘 다니고 모범생이고 사랑받고 한 집에 애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가정폭력에서부터 아니면 가족과 단절되고 아니면 성폭력적인 부분...

##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형성

###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전제

연구참여자B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매매피해자 대부분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착취와 폭력 등 피해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미숙하다고 설명하였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과 성 제공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기애도 없고 항상 짓밟힌 거죠 착취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것을 보면서는 이게 정말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진짜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연구참여자B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복지는 성매매피해자에게 인적 자원이 되어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원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성매매피해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지식’적 차원이 아닌 수용과 진정성, 공감 등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복지사에 대한 일을 하지만 내가 지식에 대한 부분들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 이게 수용과 진정성과 공감에 대한 것, 그게 대표적인 거야.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면 햇빛이 돼야 되고, 물이 돼야 되고 그 뭔가 돼야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다음에 비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거. 적으나마 나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험난했던 일들을 좀 고됐던 일들을 내가 경험한 거잖아. 실제로 이 대상자들을 통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야.

## (2)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

연구참여자B는 결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서의 경험은 성매매피해자들이 처한 근본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매매피해자들은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족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자, 심리적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한테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같이 있으면서 눈 마주쳐주고 한 번 어깨를 토닥여주고 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그래서 내가 대단한 무언가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말을 들어주고, 해주고, 안아 줄 수 있는 부분... (중략) 가족도 없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 맞아주는 사람. 나는 현재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있는 존재적인 부분이... 여기는 나한테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유만으로도 보람을 좀 주는 곳이 된다는 부분이 들어. 지금은 내가 존재만으로도 편안함도 줄 수 있고 이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으로...

### 3)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

#### (1) 성매매피해자성에 대한 인식 개선

연구참여자B는 성매매로 피해를 겪은 성제공자를 피해자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성매매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성매매로 유입된 성제공자들은 사회구조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보고 범죄자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용어보다 더욱 이들의 피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매매피해자는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필요했고 어느 부분 때문에 그 길에 가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폭력 피해 여성은 맞다라는 부분으로... 사회복지시설, 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결 나아졌죠... 이 기관 내에서도 성매매라는 단어보다도 그 게 조금 더 완화된 다른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 (2)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성매매 인식 개선 교육

연구참여자B는 성매매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은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지원 현장에 함께 하는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성과 성매매에 대한 교육적 상담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들 중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탈성매매하고 자활하기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 여성폭력 기관에 종사자들도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인식이 돼야지만이 대상자들한테도 폭력 피해다 그리고 성은 거래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환산해서 뭐 할 수 없고 그거는 직업이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직업의 전환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성매매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인권적인 진짜 성착취라고 생각 안하고 돈을 버는 수단 그것만을 보고 그쪽으로 가려고하는 성향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안 이상 안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는 자격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줘. 근데 피해 여성 중 어떤 이들은 인지적인 부분에 장애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중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입소해 있는 기간만으로 완전히 자활하기가 힘들거든...

### 3. C종사자의 이야기

#### 1) 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 (1) 진입 계기: 이끌려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길

연구참여자C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로 전공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진로는 정하지 않은 채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였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이끌려 입사 지원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방과 후 교사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학교 방과 후도 사회복지 쪽이니까.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사회복지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지로는 성매매 지원시설 이쪽이 처음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여기 그 피해자 성매매 지원 시설이 좀 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웬지 그때 생각하면 왜 내가 여기가 이렇게 끌렸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 (2) 근무 초기의 인식과 태도: 잘 알지 못하는 영역

연구참여자C가 처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성제공사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근무 초반에는 거부감도 있었으며, 자신의 시선도 부정적이었음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 교육을 받으면서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피해자가 처해진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사회구조적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있어 시설의 종사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저도 성매매 쪽으로... 그 때 그 당시에는 아예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인식 변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죠. 들어가고 나서 양성 교육을 우리가 한 달 정도는 받잖아요. 약간 그때 인제 구조적인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죠 처음 피해자를 대면할 때 거부감이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 졸업한 그런 신입이라서 그런가 되게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처음부터.

##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형성

### (1)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지원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을 제공하여 생계를 이어온 그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 자활을 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C종사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욱 그들을 마음으로 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입소자들 이제 지원을 시작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어떤 것이 무엇이 완성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미비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도 많이 생기고 중간에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마음이라 사실 서로 정서적으로 잘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서로 이제 상담을 해 가며 지내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가족 같은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 (2) 자신감 회복을 위한 지원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들이 탈성매매하여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결국 물질적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도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의지나 자신감 회복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끊어졌던 가족들도 연락하며 지내고 결혼도 한 분도 계셨고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다 보면 이제 잘된 케이스들도 물론 많이 있고 안된 케이스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다 잘되고 안되고를 바라는 거를 떠나서 일단은 이분들 자체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느끼길 바래요. 지금은 그래서 퇴소할 때는 좋은 직장 아니면 어떠한 것이 꾸려져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 분들의 마음을 딱 바로잡고 이제는 시설에 전전하지 않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3) 다각적 연계를 시도하는 역할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들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는 현장에 있다. 성매매피해자들의 경우 심리, 의료, 법률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해 주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도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비공개 시설임에도 채무보증, 신용정보, 사채로 인해 기관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C종사자 또한 이들을 맞이했을 때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계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건 아니고 인제 기존에 워낙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서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의료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추가적으로 인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서서히 천천히 보고 있고 의료, 법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좀 심리적 상태를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계를 외부적으로 좀 해주기도 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두 달, 세 달 정도 적응되는 기간을 갖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저희가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한테 맞는 부분으로 저희가 도움을 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3)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

### (1)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기간 연장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스스로가 부여한 낙인을 벗어나 자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원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소 기간 내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분주함은 성매매피해자 지원과정에서 혼자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은 아닌지 회의적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계기로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 개인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활할 때까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제 입소자 언니들한테 욕심을 부렸던 게 마지막 자활 단계다 보니까는 이 언니들이 다 잘되지만 바라는 이런 욕심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만기가 되면 이 언니들은 당연히 나가서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커서 '너무 언니들을 앞서가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지원을 받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닌데 짧은 기간인데 이 언니들한테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사회로 나가게 하는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개개인에 맞춰서 좀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 기간이 부족하다면 더 이 언니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 (2)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의 여건에서 성매매에 유입되어 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정불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며 성매매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데, 찬반 입장을 떠나 우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여성들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권에서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연결 고리가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면 이런 얘기 못해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가지구 이어온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가정불화,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유입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사회적인 약자, 구조적인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자면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사회의 그런 인식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 (3) 음성화되는 성매매에 대한 대안 모색

연구참여자C는 기존의 성매매집결지는 폐쇄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사이버 성매매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성매매집결지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음습하고 교묘하며 지능화되는 추세여서, 성매매 범죄 근절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며 이것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이제 산업화되고 지금 사회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는...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잡을 수도 없고 잡기도 힘든 그런 구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그리고 또 나이 계층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커요.

#### 4. D종사자의 이야기

##### 1) 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 (1) 진입 계기: 사회복지 전공자의 길을 찾아서

연구참여자D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대학 진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고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성매매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비를 벌어야 하는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지 않았던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하여 현재 7년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 어쨌든 저는 이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저는 사실 그 이제 뭐 대학생들이 돈 필요하니까는 아르바이트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서 용돈 주면은 그 안에서 다 모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해볼 생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그래서 일단 무조건 사회복지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 (2) 근무 초기의 인식과 태도: 기독교인의 태도

연구참여자D가 가지고 있었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상은 과거 귀갓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노래방 도우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D로서는 당시에는 그들이 이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들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존재' 정도였으며,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다. 그 이후 지원 현장에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성 착취의 피해를 겪은 사회구조적 피해자

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이다보니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쨌든 제일 먼저 손을 뻗으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되는 존재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고, 이제 한번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자취방 가는 길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몸 파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 이런 생각 당연히 안하고 그냥 일을 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어쨌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깐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바램... 그냥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형성

###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기준 정리 과정

연구참여자D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 들로서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입사한 이후 교육 일정에 맞추어 양성 교육을 받는다.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교육은 100시간의 교육과 20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및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리 명료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단순히 교육을 통한 개념 형성은 불가능했으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양성 교육 받을 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뭐지 어디까지가 성매매인지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을 받으려니깐 이제 성매매라는 자체가 그 어떤 돈이나 어떤 것을 대가로 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인 관계에서 스폰 같은 거 이런 것도 성매매라고 하는 것인가... 그 안에서 또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배우다 보니 까 그래서 이게 그 성매매라는 선이 어디까지지 이 사람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와줘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혼란이 계속 왔었죠.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일하면서 이게 내가 나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 (2)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오해 개선의 어려움

연구참여자D가 아웃리치를 통해 본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성제공자들은 성구매자인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 짙은 화장에 타이트한 홀복을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앉아있었다고 한다. 성매매집결지 업소의 포주들과 마담들은 손님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성제공자들에게 화려한 옷과 짙은 메이크업, 네일 등의 사치품들을 강요하다가 점차 성형 수술을 하게 하여 중간에서 돈을 떼어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집결지를 벗어난 성매매피해자들의 모습은 업소에서 봤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수수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D종사자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사치 등으로 인해 빚이 생긴 것이란 오해를 받는데 그것은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도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피해자라고 봐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야간 현장 방문 활동을 갔을 때 집결지에 있는 업소의 업주가 상담원들에게 ‘애들이 니들(성매매방지 상담원)보다 더 많이 벌어’ 이러면서 저희가 홍보물 등을 가지고 가면은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애들이 니들보다 더 좋은 거 써. 그런 거 줘가지고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언니가 진짜 탈성매매 했을 때는 진짜 개불 없는 거예요. 빚만 엄청 쌓여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네가 불쌍하다고 도와줬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너무 분노가 큰 거죠. (지금도) 업주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이 니보다 더 잘 버니까 니들이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니들이 그런다고 애네들이 성매매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애네들은 어차피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거둬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탈성매매하고 나서 실제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참여자D도 또한 성매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성제공자들을 사회구조적 피해자가 아닌 직업으로서 ‘자발’에 의해 선택한 사람들로 보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의 범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성을 제공하는 행위가 직업의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군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과 같이 사대보험과 퇴직연금, 근무 외 수당 등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요, 폭력, 성 착취, 사회적 낙인 등이 없어야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에 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불법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대 보험 챙겨줄 거예요? 성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런 과정까지 가능해야 성매매를 직업으로 쳐준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직업으로 친다면 만약에 고등학교생들이 졸업하는데 그 졸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애(성매매)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애(성매매)를 직업으로 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권할 수도 없으면서 '이거 직업인데 이 사람들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난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 3)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

#### (1)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성제공자의 인권 보호 필요

연구참여자D는 성제공자들의 심각한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권 보호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임에 대해 토로하였다. 성제공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을 제공하여 돈을 벌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며, 성매매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돈 냈는데 왜 너 이거(약속되지 않은 성행위 즉, 오랄섹스, 노콘돔, 얼굴에 사정 등) 안 해? 돈 환불해 줘!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로 언니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성매매하면서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진짜 목이 졸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거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어떻게 됐고... 엄청 맞았어요. 진짜 언니가 얼굴이 멀쩡한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어플로 조건 만남 하잖아요. 애들이 솔직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성관계하고 돈 받아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그런 (폭력) 상황이 있을 줄 알았겠냐고 그 언니도... 그 언니도 어플로 하던 사람인데 있을 줄 알았겠냐고요. 그게 그 언니한테는 탈성매매 계기가 되긴 했는데...

#### (2)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 교육 강화

연구참여자D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하여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다.

성매매가 불법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업소도 그렇고 너무 성매매가 그냥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는 하다못해 성 접대라는 말도 있을 정도면은 진짜 그냥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한 번씩은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법인데 불법인 걸 모르거나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불법인 거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인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불법인 거 알아도 그냥 안들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들켰으면 재수 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은 건데 그렇게 하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 (3)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 교육

연구참여자D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성제공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확산으로 어플을 통해 성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매매 방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캠페인 가서 설문지 받을 때도 그 설명은 꼭 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자가 아닌 거 같더라고 체크한 친구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간단하게 약간 토론처럼 하거든요. ‘왜 피해자가 아닌 거 같아? 이러이러저러한데’ 하면서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해서 우리는 피해자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알아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구나’라고 알면 저는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하다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대면으로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못한 지 좀 됐는데 어쨌든 성매매방지 캠페인 활동은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해 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과 인식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대책들을 마련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과 회복을 도모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각되지 못했었다.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들의 내러티브는 ‘우연으로 맺은 인연’, ‘함께 성장하는 과정’,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의미화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우연으로 맺은 인연’으로 해석되었다. 생애 과정에서 계획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계기로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며 그 우연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손은령, 2018; 신상수, 2017).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피해자 지원현장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일종의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 과정을 통해 현재 일을 선택하게 된다(Krumboltz, 1996; 2009).

연구참여자A는 인간 심리와 감정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관련 가업의 영향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현장 종사자의 길을 걷게 된다. 연구참여자B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으로 경력이 이어지게 되었고, 연구참여자C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후 이끌리는 마음에 의해 선택하였으며, 연구참여자D는 전공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우연한 계기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들이지만, 특별히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며, 우연한 사건과 기회들이 이들의 선택과 현장 종사자로서의 삶을 열게 된 계기

가 된 것이다. 이는 우연한 사건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김명화, 2022; Bright & Pryor, 2011; Salomone & Slaney, 1981).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선호되지 않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인연으로 이어져 현장 종사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는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 경험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의미화되었다. 참여자들이 현장 업무 시작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통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혼란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A는 부정적 편견을 갖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려 노력하였고, 연구참여자B는 일반적 통념 수준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C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였고, 연구참여자D는 기독교인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자들과 인연을 맺고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사회구조적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되고, 지원 현장의 종사자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종사자들 스스로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고, 점차 성매매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매매 문제는 기존 사회 통념과 담론체계에 사로잡혀 있기에 현장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부터 전반적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황경란, 2020).

한편, 탈성매매 이후 적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파괴적 사건 후에도 다시 건강한 심리 및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정희, 2009; Bonanno, 2004). 이 과정에서 주변에서 조력하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깊은 공감 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보았으며, 연구참여자B는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심리적 안정감 형성 지원을 중요하게 보았고, 연구참여자C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 회복 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D는 스스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립 과정의 길을 걸으며, 성매매 근절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라는 공통적 한계와 개인적 배경의 특수성이 조우하는 가운데 성매매피해자 지원공간이라는 맥락에서 고군분투하고 종사자들은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자임을 자각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김혜경·구차순, 2017; 육혜련·남미애, 2016)와도 의

미를 같이하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 종사 경험을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당면 과제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A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확충뿐 아니라, 이들의 자활 의지 고취를 위한 근본적 접근, 성매매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B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현장 종사자 대상 성매매인식 개선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C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지원 기간 연장 등 현실화, 음성화되는 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D 역시 성제공자의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김용화, 2010; 호철살, 2016; 이덕인, 2008). 전반적으로 성매매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숨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용화, 2010; 박순주, 2014; 우순열, 2006). 현재 배포된 성매매피해자 식별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즉, 진화된 성판매자들의 장부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성매매피해자 식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결국 현장에서 성매매피해자 구제와 자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점이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지정된 업무 외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복지 실천가이며 감정노동자이지만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자발에 의해서 성을 제공한 행위자 즉,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지원하려는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매매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이해와 성매매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구술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피해자를 성착취의 대상이자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 외에 몇 가지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4명의 종사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현장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현장 경험과 인식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 개인적 차원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 방안과 대안 모색을 위한 후속 연구로 현실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하며 현장 전문성을 쌓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탐색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별적 노력을 넘어서 현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명화(2022). “상당자가 되어가는 세 남성의 이야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제17호. 587-606.
- 김선희(2007).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시진·홍아정(2017).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여성리더의 리더십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3권 제2호. 71-107.
- 김용화(2010).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성매매 방지 기금/예산 조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45-76.
- 김정숙(2000).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구차순(2017).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406-417.
- 박순주(2014). 성매매 여성의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노동’과 ‘피해’ 경험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화(2017). 성매매 통념과 성폭행 사건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 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찬걸(2012).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297-333.
- \_\_\_\_\_(2014).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175-204.
- 손은령(2018). “우연과 계획의 조우: 진로상담의 새로운 담론”. 상담과 지도. 제53호. 93-112.
- 신상수(2017).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계획된 우연 이론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준리(2009). 성매매여성의 생애사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2013).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IST).
- 여성가족부(2016). 2016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2019).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2022). 2022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발간자료.

- 오지현(2018). 성매매 선불금에 대한 불법원인급여 적용의 현황과 과제 :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민사판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햇살(2016). 성매매에 관한 성매매처벌법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순열(2006).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육혜련·남미애(2016).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1호. 233-259.
- 이덕인(2008).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153-186.
- 이소명·김미옥(2022). “무자녀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8권 2호. 165-192.
- 이정희(2009). “탈성매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9호. 269-290.
- 이하영(2009).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영·조덕주(2022). “기업교육 강사의 직업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7-34.
- 임수정(2014).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수연(2021). 성매매 집결지 지속에 관한 연구: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여성, 지역 사회주민, 반성매매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수형(2003).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지·조아미(2021). “탈성매매 청소년의 삶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3권 제2호. 83-111.
- 최정일(2015).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281-302.
- 최정일(2018). “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보호관찰. 제18권 제1호. 123-159.
- 하지선(20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2호. 45-80.
- 홍영숙(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3권 제1호. 5-21.
- \_\_\_\_\_(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제8권 제3호. 7-28.

- 황경란(2019). 반성매매 운동 활동가들의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일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20). “성과주의와 규제 안에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반성매매 운동 활동가들의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비판사회정책. 제66호. 261-307.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Bright, J. E. & Pryor, R. G. (2011). The chaos theory of career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4), 163-166.
- Clandinin, D. J. (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Left Coast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Krumboltz, J. D. (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pp. 55-80).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Salomone, P. R., & Slaney, R. B. (1981).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the vocational choice process of non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1), 25-35.

Abstract

## A Narrative Inquiry on Field Experiences of Hands-on Workers in the Prostitution Victims Support Facilities

Miran Park\*·Hye Won Kim\*\*·Hye-Young J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hat are the working experiences and changes of awareness of workers, wh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anti-prostitution and rehabilitation in the prostitution victims support facilities. For this, four staffs with more than 5 years of the field expediences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an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developed by Clandinin & Connelly. The results of narrative data analysis were constituted as follow meanings. First, early experiences of workers in the prostitution victims support facilities were understood as 'getting involved by happenstance', Second, their continuing support experiences working for the victims were analyzed as 'the process of growing together'. Third, the participants' narratives were drawn as 'the tasks to be pursued together' as a future support dire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escribes the difficulties and hardships experienced by prostitution victims facilities from insiders' perspectives, Based on this finding, our society's general perception on the victims of prostitution should be changed and more realistic measures need to be provided.

**Keywords :** narrative inquiry, field experiences, hands-on workers, victims of prostitution, support facilities

---

\* First Author: Master of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Author: Assistant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